

김부식의 말과 행동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 《고려사열전》

글 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요즘 숙종의 왕비였던 인원왕후(1687~1757)의 한글문집 《선군유사》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왕비가 친정아버지(先君)의 언행을 적어놓음으로써 《조선왕조실록》에 없는(遺事) 외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14세의 나이에 마흔한 살의 숙종에게 간택돼 경종과 영조까지 3대에 이르는 궁궐정치를 곁에서 지켜보았을 그녀의 생각과 삶이 자못 궁금하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의 관계

흥미로운 것은 왕과 왕비에 대한 김주신의 태도다. 《선군유사》에 따르면, 국구(國舅, 왕의 장인) 김주신은 궁궐에 출입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여 자신의 신발부리만 바라보았을 뿐 몸을 펴거나 눈을 굴려 곁을 보지도 못했다. 《경종실록》에서도 그는 “조정에 나가면 자신을 낮추기에 힘썼으며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인원왕후의 기록이 상당 부분 사실인 듯하다. 그러면 사위나 딸자식 앞에서 국구가 소리 내어 음식을 씹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 그런 분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최근 동아대학교 고려사역주사업단이 펴낸 《고려사열전》(민족문화, 2006)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장인 이자겸의 힘에 의지해 왕위에 오른 고려 17대 왕 인종(재위 1122~1146)은 모든 국정을 그에게 맡겼다. 이자겸의 전횡에 위압된 나이 어린 왕은 “국구를 다른 백관들과 같이 대우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신하들에게 물었다. 거의 모든 신하들이 “왕후의 부모를 신하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조정회의에서 이자겸을 국왕과 나란히 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부식(金富軾, 1075~1151)만이 홀로 다른 의견을 세웠다. 그는 한 고조 유방의 예를 들어서 “조정에서는 왕과 신하의 예를 바르게 하고, 사사로이 만날 때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친근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듯이” 공적 공간인 조정에서는 국왕이 모든 질서의 정점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종은 상반되는 두 의견에 대해 이자겸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다. 그러자 이자겸은 김부식의 의견이 “천하의 공변된 의논”이라면서 하마터면 자신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뻔 했다”고 말했다.

천하의 공변된 의논, 시행하기 참 힘들어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왕 인종의 태도다. 15세의 무기력한 그에게 집안의 어른이자 실권자인 이자겸은 큰 골칫거리였다. 물론 모든 정사를 장인에





● 이 글을 쓴 박현모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정조의 성왕론과 경정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실록학교>에서 세종과 정조 등의 국왕리더십을 강의 중이다. <역사와 사회>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치가 정조> <세종의 수성(守成)리더십> 등의 저서가 있다.

게 맡기고 사냥이나 주색에 취해 살 수도 있었다. 반대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 조선시대 숙종이 14세에 왕위에 올라 그랬던 것처럼 - 자신의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길도 있었다. 인종이 취한 길은 그 사이에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신하들은 논란을 거듭하다 ‘상반된 두 의견’으로 집약해왔다. 그는 다시 이자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 두 차례의 물음이 ‘공적 의리와 사적 은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뜻밖의 해법을 찾아주었다. ‘행하기 전에 물어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가 왕에게 생존의 지혜를 가져다 준 것이다.

물론 이 해법은 일시적인 효력을 발휘했을 뿐이며, 이자겸은 이후로도 왕권을 넘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정치적 행위’는 왕비의 마음을 사 왕비 아버지에 의한 독살시도를 피하게 해주었다. 또한 큰 골칫거리를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인종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사건은 ‘묘청의 난’이었다. ‘이자겸의 난’(1126년)으로 궁궐이 불타고 민심이 동요되는 가운데 제기된 ‘서경천도론’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학문을 좋아해 서적소(書籍所)를 설치하는가 하면 정치하는 여가에 여러 학사들과 국사를 토론하곤 했던 인종도 서경(평양) 출신 승려 묘청의 풍수지리설에 매혹되었다. 특히 수차례의 독살위기를 겪고 왕위까지 뺏길 고비를 넘기면서 서경천도설에 마음이 끌렸다.

1135년에 묘청 등이 김부식 등 ‘개경파 타도’를 내걸고 일어섰을 때 인종은 고민했다. 묘청이 내세운 서경천도와 황제국가의 격상 등의 주장은 왕 자신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부식에 의해 “반역자”라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묘청은 새로 왕을 옹위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서경파’와 ‘개경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인종은 개경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묘청의 난 때 발휘된 김부식의 리더십

‘묘청의 난’은 결과적으로 김부식의 뛰어난 리더십과 인종의 신뢰어린 지원에 의해 극복되었다. <고려사열전>을 보면 김부식의 승리 요인은 첫째, 지구전의 채택에 있었다. 총사령관으로 임

명된 김부식은 대다수 장수와 참모들의 ‘신속공격론’을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다. 그 하나는 적이 반역을 꾸민지 5~6년이나 되었으니 치밀한 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급속히 공격하면 반군 속에 섞여 있는 일반 백성까지 상하게 된다. 따라서 “격문으로 먼저 옳고 그른 것을 잘 타일러 역적들로부터 서경의 백성들을 분리시킨 다음 서서히 압도적인 병력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전략이었다.

둘째,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이다. 지구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조정 내부의 여론 분열이다. “지금 군사 수만 명을 동원하고도 해가 넘도록 결판을 내지 못한다”는 개경 신하들의 비판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김부식은 “그 상소문 가운데 인명의 피해를 고려하지 말고 당장 적을 쳐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자 하오니, 소신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여러 의견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그에게 맡겼고” 결국 이듬해 식량부족으로 사기가 저하된 반군을 기습해 대승을 거두었다.

김부식이 이처럼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전투 상황을 자세히 보고해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첩자 등을 이용해 평양성 내부 상황을 파악한 다음 왕에게 실시간으로 알렸다. 다음으로 그는 왕을 중심에 놓고 행동했다. 언제나 왕의 운임에 의거해 자신의 명령을 내렸고, 승리한 다음엔 “주상의 현명하신 계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인 의식은 갖되 결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언행 덕분에 그는 만년에 <삼국사기>를 짓고 77세에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 <고려사열전>은 바로 이 같은 국왕과 신료들의 언행이 풍부하게 기록된 최고의 정치리더십 교과서이다. ㉞

번역된 <고려사> 책

현재 북한번역판 <신편 고려사>(신서원, 2001)와 동아대번역판 <역주 고려사>(동아대출판부 1965)가 있는데, 전자는 오역과 과도한 의역으로 적합치 않고, 후자는 한문투성이에 불친절한 역주가 아쉽다.

그런데 최근 동아대역주사업팀이 과거의 책을 전면 새롭게 역주하여 <국역 고려사>(도서출판 민족문화, 2006)를 펴냈다. 우선 열전편지 먼저 간행돼 나왔는데, 역주와 함께 관련 연구논문을 소개한 것도 책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된다.